李叔樑의 永慕堂 경영과 <汾川講好歌>의 주제의식*

이승준**

차 례

1. 서론
2. 李叔樑의 永慕堂 경영과 사회사적 맥락
3. <汾川講好歌>의 구성적 특성과 주제의식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의 목적은 李叔樑(1519~1592)의 永慕堂 경영과 관련한 사회사적 맥락을 토대로 <汾川講好歌>의 구성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살피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분천강호가>는 16세기 주자가례가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향약을 통합한 형태의 삭망의가 거행되며 향유된 작품임이 밝혀졌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분천강호가>와 관련한 역사적 조건에 보다 주목하였다. 그 결과 <분천강호가>의 창작과 관련한 영모당 경영은 부친인 李賢輔(1467-1555)로부터 마련된 문화적 전통이자 향촌 사족사회의 위상 정립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 여씨향약의 시행 문제가 당시 이황을 비롯하여 이숙량 가문이 향촌에 시행해야 할 일종의 책무로서 주목받았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창작된 <분천강호가>는 16세기 주자가례의 내면화 과정만큼이나 향유 주체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에 기민하게 반응한 결과물임을 살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재원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www.kci.go.kr

이와 더불어 <분천강호가>의 구성적 특성과 주제의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부모와 우형제의 윤리를 근간으로 화친척에 해당하는 가문의 윤리를 거쳐 사대부 일반의 보편적 윤리 규범으로 확장되어 가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분천강호가>의 주제의식이 효부모와 우형제의 윤리에 집중된 동인으로는 이현보 대에 마련한 효의 문화적 맥락을 계승하고자 하는 가문 구성원의 의식과 함께 영모당 경영을 전후로 이숙량 형제들이 처한 역사적 정황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살펴보았다.

핵심어 : 이숙량, 효, 『분천강호록』, <분천강호가>, 영모당, 여씨향약.

1. 서론

<분천강호가>[1]는 『汾川講好錄』에 수록된 6수의 연시조이다. 이숙량이 분천 일대의 영천 이씨 가문 구성원을 五倫의 질서로 교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분천강호가>와 관련한 연구로는 길진숙의 선구적인 성과가 있다. 그는 16세기 사림에 의해 朱子家禮가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가족 의례인 朔望儀가 鄕約을 통합한 형태로 거행된 정황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향촌 사회가 지향하였던 '효' 중심의 행위 규범을 훈육하기 위한 의도에서 삭망의가 시행되었으며, <분천강호가>는 의례의 구성원을 感發시켜 자연스러운 내면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향유되었다고 주장하였다.[2] 길진숙의 논의는 <분천강호가>가 향촌 사회의 지향에 대응하여 부모를 향한 '효'를 주제화하고 있음을 전제하는데, 이는 조선 전기 성리학의 전개 과정과 맞물려

1) <분천강호가>의 창작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숙량이 분천으로 돌아온 1570년 이후에 『분천강호록』이 쓰인 정황에 근거하여 추산하고 있다. 본론에서 상술할 것이지만, 당시의 정황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선행 연구의 추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길진숙, 「16세기 사림의 주자의례(朱子儀禮) 실천과 「분천강호가(汾川講好歌)」 - 제도에 맞는 몸과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288-293쪽.

www.kci.go.kr

작품의 창작과 향유 맥락에 대한 분석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교훈시가는 창작 주체 또는 향유 집단의 현실에 대한 문제적 시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3] 관습적 행위의 일환으로 창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선 전기 시가문학은 사대부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사에서 '오륜'이 고정된 기대지평에서 향유된 것이 아니라, 작품 창작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에 반응하며 계보학적 전통을 수립해 나갔다는 하윤섭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4] 그의 방법론에 의거한다면 <분천강호가>의 향유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 사림 일반이 추구하였던 <주자가례>의 일상화 작업과 더불어, 이숙량이 '효'라는 오륜의 규범을 강조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조건과 그 문학적 대응의 방향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이데올로기의 문제의식에 앞서 <분천강호가>의 창작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당위적 결과로 귀납될 수 있는 영역 또한 당대의 현실적 층위에서는 굴곡과 극복의 단계를 거치며 그들 나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천강호가>가 향유된 삭망의는 구성원에게 상당히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였고,[5]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잘못을 범하고 3회 이상 타일러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방축한다는 규정마저 삽입되어 있었다.[6] 실제 집행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정황은 삭망의를 통해 습득할 윤리 규범에 대한 수용 집단의 엄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관점에 따라서는 당시 효를 통한 가문 질서의 확립이 그만큼 문제적이고, 쟁점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3)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0, 1-300쪽.

4) 하윤섭, 「조선조 '五倫'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3쪽.

5) 길진숙, 위의 논문, 291쪽.

6) 李叔樑, 『汾川講好錄』. "매번 모일 때 각각 그 들은 바를 진술하여 여러 어린이 중 한 가지라도 착한 행실이 있으면 포상하여 찬양한다. 잘못이 있는 자는 僉議에 따라 벌한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반복하여 타이르고 세 번을 범한 뒤에야 축출한다. [每會各陳其所聞 諸幼中有一善行 則褒而揚之 其有過者 僉議罰之 雖有所失 反覆敎之 至於三犯然後 黜之]"

www.kci.go.kr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이숙량의 영모당 경영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영모당은 이숙량이 1576년에 부친인 李賢輔(1467-1555)가 건축했던 愛日堂을 重修하여 改名한 건물이다. 기본적으로 <분천강호가>는 이숙량이 대구에서 梅巖書院을 짓고 강학 활동에 전념하다가 1570년경에 분천으로 돌아와 영모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7] 따라서 영모당 경영은 <분천강호가>의 향유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영모당이 이숙량과 그의 형제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론에서 상론할 것이지만 이현보가 건립한 애일당은 안동 재지 사족 사회의 문화 활동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숙량이 그의 형들인 李文楑(1498-1581), 李仲楑(1504-1582), 李季楑(1508-?)과의 연대를 토대로 영모당을 경영한 사례는 애일당을 중심으로 이현보 대에 형성된 효 중심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8]

이와 더불어 애일당은 분천 일대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상 정립 문제와 관련된 공간이기도 하였다. 지역 사족 간의 교류의 장소이자, 부모에 대한 효행을 토대로 향촌 사회를 교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현보 사후, 이숙량 형제들에 의해 경영되었던 정황은 이현보 대에 마련된 애일당의 위상과 모종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애일당을 영모당으로 개명하고, 이를 경영하였던 시기에 향유된 <분천강호가> 또한 상기한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본고는 이숙량을 위시한 영천 이씨 가문 구성원이 '오륜'의 가치 규범 중 '효'의 윤리를 선택한 역사적 동인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16세기 분천 일대를 중심으로 애일당 운영과 관련한 미시사적 정황을 통

7) 길진숙, 위의 논문, 287쪽.
8) 이와 관련하여 이현보 대에 마련한 문화적 전통이 그의 아들들에게 면밀히 이어져 분강가단의 풍류로서 정착한 정황을 밝힌 최재남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297-315쪽.

www.kci.go.kr

해 <분청강호가>의 창작 및 향유 맥락을 점검하고, 나아가 <분천강호가>의 구성과 주제의식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李叔樑의 永慕堂 경영과 사회적 맥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분천강호가>와 영모당 경영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되짚어 보도록 하자. 선행 연구는 『梅庵先生文集』에 수록된 『분천강호록』과 行狀[9]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설득적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숙량이 대구에서 분천으로 돌아온 과정은 매암서당이 아니라 硏經書院과 관련된다. 연경서원은 대구 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이숙량이 溪東 全慶昌(1532-1585)과 함께 1565년에 건립하였다. 지역 사림을 대상으로 道學을 강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숙량과 전경창의 주도하에 이황의 학문이 전파되는 기반 역할을 수행하였다.[10]

이숙량은 연경서원 창건을 주도하고 이황에게 기문을 받기 위해 거듭 요청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정작 그는 서원이 창건된 이후 분천으로 돌아와 버렸다. 심지어 이황이 서원을 운영하며 지역 유생들을 唱導할 인물로 이숙량을 지목하였음[11]에도 불구하고, 분천으로 돌아온 행적은 귀거래의 일반론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이숙량이 연경서원 창건 이후 5년 남짓의 시기에 분천으로 돌아온 계기에

9) 이숙량, 『梅庵先生文集』, <行狀> “其敎子弟, 而立家範, 則有所謂講好錄者, 行禮勸懲之節, 略倣呂氏鄕約. 以孝父母, 友兄弟, 和親戚, 睦隣保, 列爲四目, 而末引聖賢之事, 以訓之恰是從小學明倫篇中來也.”

10) 연경서원의 창건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具本旭,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4-8쪽.

11)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書李大用 硏經書院記後> “愚意如吾大用, 有志此學, 蓋嘗得其書, 口講心究, 而知其說矣. 今又爲衆所推, 作爲此院, 則倡諸君導後生, 以實其事者, 非大用而誰乎?”

www.kci.go.kr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다만 분천으로 돌아온 이후의 행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576년 애일당을 중수하고,[12] 이곳에서 四皓會를 조직하여 형제들 간의 연대모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13]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천강호록』을 저술하고 삭망의를 시행하는 한편, <분천강호가>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의 귀거래에는 가문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듯하며, 애일당 중수의 정황은 중요한 방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애일당 중수와 관련한 <永慕堂 幷小序>의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孤露餘生으로 마음과 자취에 항상됨이 없었다. 반평생을 남쪽에 있다가 백발이 사람을 놀라게 할세,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하루아침에 돌아와 보니 축대가 황폐하고 집이 기울어져 쥐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이에 측연히 슬픈 마음이 일어나 그 터를 새롭게 도모하기를 결심하고 옛 것의 체제에서 조금 증감하였다. 집이 완성된 후 형제들이 모여 한잔 술을 들면서 落成을 하였다.
>
> ㉡ 그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 이 집을 지은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늙으신 어버이를 위하여 노니며 완상하신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愛日로 명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늙으신 후, 우리 형제가 또 아버지께서 늙으신 어버이를 모시던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인사가 변해버려 옛일은 다시 없고 집만 홀로 煥然히 새로워졌습니다. 어버이를 모시고 즐기던 일을 다시 하지 못하고 단지 그 즐거움을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니, 우리의 마음이

12) 이숙량의 셋째 형인 賀淵 李仲樑(1504-1582)의 年譜에는 애일당을 중수한 시기가 1576년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영모당 경영의 시작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李仲樑, 『賀淵先生年譜』, "四年丙子, 重新愛日堂次大用韻. 先生小敘云, 余之生三世於此, 猶及耡立之初, 而侍遊登覽, 逮至世改, 堂傾咨懷, 共嘆. 今此重營, 煥然一新, 弟兄俱會, 大用吟成五絶, 八旬老兄囑和, 筆力尙健, 輝映卷中, 亦可賀也."

13) 사호회는 이숙량을 포함하여 이문량, 이중량, 이계량 형제의 모임을 말한다. 최재남은 이 사호회를 기반으로 이현보 대에 마련한 문화적 전통이 아들들에게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사호회는 1578년 애일당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숙량의 <汾川四皓歌>를 그의 형들이 차운한 것으로 보아 이숙량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여겨진다. 사호회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汾川四皓歌 幷序>와 이중량, 『하연선생연보』를 참고할 것.

www.kci.go.kr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이곳을 사용함에 애일로 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영모로 바꾸고자 하오니 옳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누군가가 말하기를 '집을 지은 것은 본래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함이지, 스스로 모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에는 愛日의 정을 소용할 바가 없으니, 어찌 반드시 고쳐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周나라 사람이 감당나무 한 그루에도 오히려 서로 경계하며 베고 꺾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덕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백성이 方伯에게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자식이 어버이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움막을 삼았던 곳과 쉬었던 곳에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어버이가 거처하며 즐기시던 곳은 가장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14]

먼저 ㉠을 통해 애일당은 이현보의 사후, 쥐 소굴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안읍지인 『宣城誌』에도 애일당이 무너져 있었으며 이숙량에 의해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15]을 보면, 이 기록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당시 실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이현보가 지니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부친인 李欽(1522~1562)을 봉양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16]이 아들의

14)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永慕堂 幷小序> "孤露餘生, 心跡無恒. 半生於南, 白髮驚人, 狐丘入念, 一朝來還, 則臺荒堂傾, 鼯鼠之所窟穴矣. 於是惻然傷感, 斷焉謀新其基, 則仍其舊而制度, 則稍爲之增損焉. 屋宇旣成, 兄弟旣具, 擧一杯以落之, 因揮涕告兄曰, 嗚乎! 此堂之作, 乃先君爲老親, 遊玩之地也. 故命之曰愛日. 先君旣老, 吾兄弟, 又以先君, 所以奉先君者, 奉之矣. 日月流邁, 人事推遷已矣, 無復昔日之事, 而堂獨煥然重新. 不得陪奉, 其親樂而只得樂其樂, 其於吾等之心, 爲何如哉? 吾用是不忍仍喚其愛日, 而欲以永慕換之, 可乎? 或曰, 堂之設, 本悅親非自奉也. 今無所庸乎愛日之情, 則何必於改作. 余曰, 不然. 周人於甘棠一木, 猶相戒以勿剪勿伐, 何耶? 其不以思, 其人思其德也歟? 民之於方伯, 猶然, 則子之於親, 爲何如哉? 於所芟所憩之處, 猶然, 則況其居處玩樂, 而最所留念者乎? 僉曰, 然."

15) 안동문화원, 『國譯 永嘉誌 · 宣城誌』, 영남사, 2011, 577쪽. 『선성지』는 예안읍지이다. 초고는 權是中(1572-1644)에 의해 161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6) 李賢輔, 『愛日堂具慶帖』 "부모님께서 건강히 살아계실 때에 그 속에서 모시고 놀며 여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이름을 '愛日堂'이라 하였으니, 마음과 뜻이 어찌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구 두 수를 지어 여러 사람에게 화답을 구하여 이전의 養老宴 詩와 함께 아울러 전하고자 한다. [欲及雙親之無恙, 侍遊其中以娛餘年. 名之曰愛日堂, 情志豈不急急歟. 成詩二絶, 求和諸公, 欲與前之養老詩幷留云.]"

www.kci.go.kr

대에서조차 온전히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숙량의 형제들이 이를 온전히 관리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애일당이 보수되었던 점을 보면 분천 귀거래를 즈음하며 이숙량이 모종의 이유로 이 건물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은 이숙량이 애일당을 보수하고 영모당으로 개명하려는 동인을 밝히는 부분이다. 이숙량은 부친인 이현보의 효심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어진 것과 현재 부친을 받들 수 없는 상황에서 당호를 차마 그대로 부를 수 없음을 토로한다. 이를 통해 그가 영모당 경영 문제를 둘러싸고 이현보 대에 형성된 효의 맥락을 주목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에서 이숙량의 입장에 대한 반론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은 애일당이 생전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이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또한 고칠 필요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이현보 사후 애일당 보수 문제를 공유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이숙량의 경영 문제를 둘러싼 내적 긴장감을 보여준다.

따라서 1576년에 이숙량이 애일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가 ㉡에서 부친 이현보 대부터 형성되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전해져 온 효의 윤리의식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생전의 부모를 기쁘게 하던 곳에서 부모를 향한 변함없는 효심을 발현하는 곳으로 건물의 의미를 고치는 작업은 이숙량 개인의 견해를 넘어서 가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며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숙량은 영모당 개명을 배경으로 절구[17]를 지었고, 백형인 이문량과 이중량을 비롯하여 이

17)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永慕堂 幷小序> “半生踪跡苦無恒, 皓首歸來感慨增. 不憚拮据新舊器, 非緣觀美衒吾能.(右不得不重修之意) 愛日深情何處施, 小堂依舊枕江湄. 換名永慕人休怪, 風樹年年不盡悲.(右欲換以永慕之意) 時序難禁劇逝川, 臺前雲物尙依然. 無涯感裏還堪幸, 四皓今方講棣篇.(右兄弟四人俱白常有商山戲語故云) 重營舊貫二經春, 燕舞鶯歌共賀新. 坐到黃昏人不見, 落花飛盡更無塵.(右營繕旣訖獨坐寓興)”

www.kci.go.kr

현보의 외손인 金基報 등이 차운시를 남겼던 정황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숙량의 영모당 시에 차운한 인물들은 안동 사족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18] 특히 전경창의 경우는 연경서원을 함께 창건한 대구 지역의 사족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숙량의 영모당 운영을 둘러싼 효의 문제가 가문 구성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현보 생전에 애일당에서 개최한 양로연인 九老會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구로회는 기본적으로 부친과 지역 존장에 대한 친애의 마음이 바탕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사림들 간의 교류의 장이자 향촌 교화의 방편으로서 소용되었다.[19] 이현보의 애일당 운영은 효를 매개로 하여 재지사족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활동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애일당을 둘러싼 재지사족의 위상 문제는 구로회에 대한 이숙량 형제들의 애착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보가 결성한 구로회는 1547년을 모임[20]으로 중단되었지만, 1569년에 이르러 이문량에 의해 다시 열렸다.[21] 그리고 이문량 사후인 1581년에 이숙량은 향중의 구로회를 대대로 자신의 가문이 운영했다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22] 이러한 점은 자신들의 가문이 향촌을 교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현보가 건립하고 이숙량 형제들이 개명한 영모당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모당에서 이루어지는 효의 윤리 의식과 관련한 행위들은 가문 구성원 간의 질서 정립 문제를 넘어서 이현보 대로부터 마련된 전통을 계승

18) 『매암선생문집』에서 차운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문량, 이중량, 權東輔, 金富弼, 吳守盈, 柳夢鼎, 全慶昌, 金基報, 裵三益, 金農, 金克一, 金誠一, 權春蘭, 楊士奇, 金富倫, 申之悌, 李埈, 任屹, 金涌, 吳澐.

19) 최은주,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聾巖 李賢輔의 문화 활동」, 『大東漢文學』 45, 대동한문학회, 2015, 62-66쪽.

20) 이중량, 『하연선생연보』, "二十六年丁未, 重陽日奉行焚黃祭祀, 因設續九老會."

21) 李晩燾, 『響山文集』, <朝奉大夫行平陵道察訪碧梧李公行狀> "已巳公年七十二, 復張九老會于汾川. 文采風流, 宛然孝節公, 癸巳之會也."

22)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續九老會敬次先兄韻爲諸公要和> "吾家世世主斯會, 十室鄕中多皓鬚. 野態山容自在老, 淸泉白石放天娛. 惟將笑語輸肝肺, 肯把威儀較細麤. 深淺任情何用勸, 起居惟意不容扶. 昨朝天上星垂丙, 他日人間畫作圖. 共許疏狂參席末, 我非司馬愧能無."

www.kci.go.kr

하는 한편,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상 정립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를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한 헤게모니 문제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영모당의 운영 과정에서 창작된 『분천강호록』과 <분천강호가> 또한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한 오늘날의 이해는 주자가례의 일상화 작업과 더불어 분천 일대를 장악한 영천 이씨 가문의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禮制를 통한 교화의 과정에서 분천 일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천 이씨 가문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고조되었을 점을 거론하였다. 선행 연구의 지적은 조선의 사회사를 관류하는 거시적 구도를 전제로 향촌사의 공시적 지점을 적절히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적이다.

하지만 주지하듯 향촌사회에 주자가례를 일상화하는 작업은 16세기 후반의 몇몇 선구적인 인물에 의해 수행된 과제였다.[23] 문제는 이와 같은 시선에서 본다면 이숙량을 위시한 가문 구성원이 <분천강호가>를 향유한 것은 분천 일대의 다른 사족들보다 도학에 더욱 철두철미했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숙량은 이황이 예안 일대의 사족들과 『朱子大全』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도학을 깊이 완미한 인물로서 극찬을 하였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이문량, 이중량 등은 도학을 無味之書로 받아들였다.[24] 이러한 점은 이숙량의 형제들은 도학을 수용하는 문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퇴계의 문도로서 이숙량과 함께 연경서원 창립에 앞장섰던 전경창의 경우도 주자가례가 아닌 <家憲>과 <家令>을 지어 가문 구성원을 교육하였다.[25] 또한 이 시기 성리학을 수양한 사대부들 역시 禮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향약을 통섭한 형태의 주자가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

23)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길진숙, 앞의 논문, 279-284쪽.
24) 朴賢淳, 「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修學과 관직 진출」, 『교육사학연구』 17, 교육사학회, 2007, 93-95쪽.
25) 전경창, 『溪東先生集』, <家憲>·<家令>.

www.kci.go.kr

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나름의 저술 행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다.[26] 따라서 이숙량 가문의 삭망의와 『분천강호록』을 당시의 도학적 경향만으로 온전히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행장>의 기록은 상당히 주목된다.

> 그 자제를 가르치고 가법을 세움에 있어서는 이른바 『講好錄』이라는 것이 있으니, 예절을 실행하고 권면 징계하는 절도는 대략 呂氏鄕約을 모방한 것이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친척 간에 화목하고 이웃 간에 친목하는 네 가지 조목을 열거하고 끝에 성현의 일로 훈계하니 흡사 小學의 明倫篇을 따른 것과 같았다.[27]

상기한 행장의 기록은 『분천강호록』의 저술이 여씨향약을 전범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주의할 부분은 오늘날 여씨향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16세기 향촌 사회에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질곡을 겪었다는 것이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 과정에서 여씨향약의 시행 여부는 己卯士禍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으며, 함양 사회를 중심으로 江右 지역의 士風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중종 12년인 1517년 함양의 유생인 金仁範(?-?)의 요청에 의해 풍속 교화의 전범으로서 거론된 여씨향약은 金安國(1478-1543)과 趙光祖(1482-1519) 등이 주도하였지만, 도리어 인륜의 기강을 해치고 풍습을 퇴폐시키는 사례로 지목 당하였기 때문이다.[28]

이후 여씨향약은 명종 1년인 1546년에 周世鵬이 향촌 교화를 위한 효용을 거론하며 다시 주목받는 듯도 하였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향촌은 王化가 미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거행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었

---

26)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120-142쪽.

27)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行狀> "其敎子弟, 而立家範, 則有所謂講好錄者, 行禮勸懲之節, 略倣呂氏鄕約. 以孝父母, 友兄弟, 和親戚, 睦隣保, 列爲四目, 而末引聖賢之事, 以訓之, 恰是從小學明倫篇中來也."

28) 이승준, 「16세기 함양 사회의 동향과 「단가삼결(短歌三闋)」의 문학적 대응」,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173-174쪽.

www.kci.go.kr

다.[29] 그러다가 선조 1년인 1568년에 이황이 夕講에서 조광조를 변호하며 여씨향약의 거행을 진언한[30] 이후, 1573년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다.[31] 이러한 점은 당시 16세기 여씨향약의 시행 여부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정뿐만 아니라 향촌 사족, 특히 이황을 위시한 예안 일대 사족 사회에 중요한 화두였음을 적절히 보여준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여씨향약을 1574년에 이중량이 직접 제수 받았다는 사실이다.[32] 따라서 이황에 의해 다시 거론된 여씨향약을 제수 받은 이중량은 어떠한 형태라도 이를 시행해야 할 입장과 마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 그는 강원도관찰사 업무에서 해방되어 從弟인 李忠樑(?-1574)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33] 목민관의 위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여씨향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문의 층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게다가 이현보의 뜻을 받들어 1566년 이황이 작성한 <鄕立約條>가 당시 사족들 간의 이해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던 전적[34]은 더욱더 가문의 층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동인이 되었을 듯하다.

따라서 이중량이 제수받은 여씨향약은 이숙량을 위시한 가문 구성원과의 연대 하에 영모당 경영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삭망의 시행과 <분천강호가>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여씨향약을 기반으로 하는『분천강호록』의 구성은 중앙과 향촌 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분천 일대 이숙량 가문의 영모당 경영 문제와 맞물려 예법 시행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분천강호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16세기

29)『明宗實錄』1년 8월 10일 甲午.
30)『宣祖實錄』1년 9월 21일 丁卯.
31)『선조실록』8월 22일 己巳; 6년 9월 1일 戊寅. 8월 22일 전교 이후, 다시금 윤허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여씨향약의 시행에 대한 선조의 부담을 적절히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후 선조는 여씨향약의 시행을 다시 윤허하지 않았다.『선조실록』20년 1월 1일 庚寅; 1월 3일 壬辰; 1월 4일 癸巳 참조.
32) 이중량,『하연선생연보』, "神宗萬曆二年甲戌二月, 宣賜呂氏鄕約."
33) 이중량, 위의 책, "三月哭從弟大材忠樑."
34) 길진숙, 앞의 논문, 284쪽. 이황이 작성한 <鄕立約條>는『退溪集』42, <鄕立約條序 附約條>를 참고할 것.

www.kci.go.kr

주자가례의 일상화 작업과 함께 영천 이씨 구성원이 마주한 정치사회적 조건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汾川講好歌>의 구성적 특성과 주제의식

본 장에서는 영모당 경영 문제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조건들이 <분천강호가>의 창작 및 향유 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쉽게도 오늘날 <분천강호가>가 이숙량의 가문에서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적 구조, 즉 연시조로서의 구성적 특성과 주제의식 등을 검토하는 방향을 통해서 그 양상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분천강호가>의 창작 동기 및 주제의식을 서술한 <後序>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 무릇 이 여섯장의 노래는 모두 자신을 가다듬고 남을 권면하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의 마음이 근심스럽고 한스럽다. 지난날의 선인을 생각함이라. 날이 새도록 잠 못 이루며 부모님을 그리워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옛사람이 어지러운 때를 만나 형제간에 서로 경계하면서 화를 면한 것을 읊은 것이다. 아! 시대의 어지러움을 만난 것이 어찌 가문의 어지러움을 만난 것만 하겠으며, 서로 경계하면서 화를 면하는 데에 급한 것이 어찌 금수를 면하는 것의 간절함만 하겠는가.[35]
>
> ㉡ 사람이 사람으로 된 까닭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인륜의 가장 중대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이다. 사람으로서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모르면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
>
> ㉢ 그러나 그 금수와 같아진 것을 비록 죄를 주어야 하나 진실로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역시 교양의 바탕이 없고 가정의 법도가 엄하지 못한 것에 말미암아 우물우물 구차하게 넘어가는 사이 저도 모르게 금수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父兄된 자가 어찌 그렇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보지 않고 다만 그에게만 허물을

35) 단락 구분은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하였다.

www.kci.go.kr

돌려서 되겠는가. 이것이 내가 근심하고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옛날 부모를 생각하는 까닭이었다.

㉣ 깊고 긴 밤 팔에 그리고 가슴에 쓰면서 만에 하나의 방법이라도 구원할 바를 구하다가 곧 한 가지 방법을 얻었으니 이르되 "위압으로 하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것만 못하고 사람을 따라오도록 꾸짖기보다 내가 먼저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제 자신이 힘써야 할 노래를 지어 하나같이 효제충신으로 주장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하여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안일한 마음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략)[36]

---

36) (중략)의 내용은 성현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나열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숙량. 『분천강호록』 "아! 나의 노래를 듣고 척연하게 감동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없는 자이며, 나의 노래를 듣고 분연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자는 이른바 금수라 경계하지 아니하며 두렵게 여기지 않겠는가. 순임금의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미련하여 아우인 상은 오만하였다. 그런데도 순임금이 효성을 다하여 그 아버지 고수도 마침내 순종하게 되었다. 설포의 아버지가 후처를 얻은 뒤에 포를 미워하여 쫓아내었다가 포가 효성을 다할세 여러 해만에 아버지와 계모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또 그 조카들이 분재하여 따로 살려고 할세 좋은 토지와 기물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나쁜 것만을 자신이 차지하여 이르기를 내가 평소 쓰던 것이라 몸과 입에 맞아 편안하다고 하였다. 최효분, 효위 형제가 효도하고 의리를 지키며 인자하고 온후하였으며, 우애가 지극하니 그 아내들도 역시 서로 친애하여 유무를 함께 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분의 숙부가 사망한 뒤에 홀로 있는 숙모를 어머니처럼 섬기어 모든 재물을 그 숙모에게 맡겨 사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숙모가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우홍의 아우 필은 술을 좋아하고 취정이 심하여 우홍의 소를 쏘아 죽였는 것을 그 아내가 말하여도 못들은체 하다가 여러번 말하니 포를 뜨라하고 글을 읽으면서 아우를 탓하지 않았다. 아! 순임금의 부모와 설포의 부모가 그토록 박대하였는데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효도하여 마침내 그 부모가 뉘우치도록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부모를 섬김에 이 두 사람과 같은 불행이 없는데도 효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죄를 알만하다. 설포의 분재에 있어 매우 나쁜 것을 자신이 취한 최효분과 우홍의 독실한 우애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한 이해에도 서로 다투어 원수처럼 여기니 그 인간됨에 어질고 못남이 어떠하단 말인가? [嗚呼! 聞吾之歌, 而不惕然感動者, 無人子之心者也, 聞吾之歌, 而不奮然懲艾者, 眞所謂禽獸也. 可不戒哉, 可不懼哉. 大舜父頑母嚚象傲, 止瞽瞍亦允若. 薛包父娶後妻而憎包, 止歲餘父母慙而還之. 又 有第子求分財異居, 止身口所安也, 崔孝芬孝暐兄弟, 孝義慈厚, 止諸婦亦相親愛 有無共之, 孝芬叔父旣亡後, 事叔母李氏, 若事所生, 止四時分賚, 李氏自裁, 牛弘弟弼好酒而酗, 止讀書不輟, 嗟呼, 大舜之父母, 薛包之爺孃, 其待子之薄爲何如, 而其子非惟不怨, 其克敬克孝, 至於如此, 則凡人之事親, 無二者之患, 而不得爲孝子者, 其罪可知也. 至如薛包之分財, 自取太薄崔孝芬, 牛弘友愛之篤, 孰察而深念之, 則今世之人, 臨小利害, 便生猜貳, 至若仇敵者, 其於爲人 賢不肖何如耶?]"

www.kci.go.kr

㉤ 옛날 성현들의 일을 비록 사람마다 바랄 수 없으나 사람마다 다 이것으로써 인륜의 큰일이며 아름다운 일로 삼아 항상 유념하고 감탄하며 때때로 외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비록 착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또한 패륜 불순한 자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로 인하여 분연히 흥기하면 고유의 양심이 저절로 피어나 마침내 효도하고 공손한 사람이 되는 자가 그 사이에 나오지 않겠는가.

㉥ 이것이 내가 반복해 말하되 혹은 글로 혹은 노래로 혹은 언문으로 깨우쳐지는 까닭은 반드시 자제들로 하여금 글하는 사람은 실천하여 미치게 하고, 미혹된 자라도 또한 금수와 같아지지 않도록 하고저 함이었으니, 아! 늙은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또한 간절하고 지극하였다.[37]

먼저 ㉠을 통해 <분천강호가>의 성격이 詩經에 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시경의 내용은 어지러운 때를 만나 형제간에 서로 경계하여 화를 면한 것인데, 가문의 위기와 금수를 면하는 것이 시경에서 경계하는 상황보다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분천강호가>의 지향은 가문의 위기에 대한 경계와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함양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가 가문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강조된 윤리적 긴장감은 유가 윤리에 대한 사대부의 관습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숙량은 그 방법론으로 ㉡을 통해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강

37) 이숙량, 『분천강호록』. "凡此六章, 皆自責以勉人也. 詩云, 我心憂傷. 念昔先人. 明發不寐, 有懷二人. 此古人遭時之亂, 而兄弟相戒, 以免禍之詩也. 嗚呼! 遭時之亂, 孰如遭門之亂, 相戒以免禍之急, 孰如免於禽獸之切哉. 人之所以爲人者, 以其有人倫, 而人倫之大者, 曰孝父母也, 友兄弟也, 人而不知孝父母友兄弟, 則其違禽獸不遠矣. 然其爲禽爲獸, 雖可罪也, 而苟求其本, 則亦由於敎養, 無素家, 道不嚴, 因循苟且, 不自知其入於此也. 爲父兄者, 可不思其致此之由, 而徒歸咎於彼也哉. 此吾所以憂傷不寐, 而念昔二人也. 漫漫長夜, 盡肘寫胸, 求所以救, 拔其萬一之道, 乃得其一術, 曰施之以威, 不若動之以善, 責人以從, 不若先之於己. 乃作自責之歌 一以孝悌忠信爲主, 欲使聽之者, 庶幾感發其善心, 而徵創其逸志也. (중략) 古昔聖賢之事, 縱不得人人而望之, 然人人若皆以此, 爲人倫之大事美事, 居常留念歎賞, 而時時講論不置, 則雖未得爲 善人, 亦不至於悖戾不順之子弟矣. 或因此奮然而興起焉, 則安知固有之良心, 油然不能自已, 而終至於爲孝爲悌者, 不出於其間哉. 此吾所以反覆論列, 或以文, 或以歌, 或諺解, 以曉之, 必欲使子弟之文者 而及之, 其惑者, 亦不至於禽獸之域也. 嗚呼, 老夫之望, 於汝曹亦云勤且至矣."

www.kci.go.kr

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38] 효부모, 우형제의 가치를 모르면 금수와 다름이 없다는 선언은 <분천강호가>를 창작할 당시 이숙량이 지니는 문제의식을 적절히 보여준다. 또한 작품의 주제의식이 사대부의 윤리를 대표하는 오륜의 지표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병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살펴보도록 하자.

㉡과 ㉢은 <분천강호가>의 창작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에서 이숙량은 금수된 자는 벌을 주어야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교양의 바탕이 없고 가정의 법도가 엄하지 못한 것에 연원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후 아버지와 형이 된 자는 그 본말을 생각해야 하며, 다만 그(彼)로 대변되는 아들이자 동생에게만 허물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39] ㉢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압적 태도보다 당사자를 감발시켜야 하며, 솔선수범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분천강호가>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40]

㉤은 <분천강호가>의 향유 과정과 그 효용성에 대한 이숙량의 기대심리가 나타난다. 효애와 관련한 성현의 구체적인 실례를 나열한 후, 이를 항상 유념하고 잊지 않는다면 비록 착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패륜 불순한 자제는 되지 않는다는 이숙량의 언술은 도덕규범에 대한 하한선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사에 속하는 ㉥에서도 확인된다. 이숙량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문 구성원을 교화하고자 하는 이유로 미혹된 자가 적어도 금수와 같아지는 것을 면하게 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41] 이를 통해 <분천강호가>의 주제의식

38) 이숙량, 위의 책, “人之所以爲人者, 以其有人倫, 而人倫之大者, 曰孝父母也, 友兄弟也. 人而不知孝父母友兄弟, 則其違禽獸不遠矣.”

39) 이숙량, 앞의 책, “然其爲禽爲獸, 雖可罪也, 而苟求其本, 則亦由於敎養無, 素家道不嚴, 因循苟且, 不自知其入於此也. 爲父兄者, 可不思其致此之由, 而徒歸咎於彼也哉.”

40) 이숙량, 앞의 책, “漫漫長夜, 盡肘寫胸, 求所以救, 拔其萬一之道, 乃得其一術, 曰施之以威, 不若動之以善, 責人以從, 不若先之於己. 乃作自責之歌一, 以孝悌忠信爲主, 欲使聽之者, 庶幾感發其善, 心而徵創其逸志也.”

41) 이숙량, 앞의 책, “此吾所以反覆論列, 或以文, 或以歌, 或諺解, 以曉之, 必欲使子弟之文者,

www.kci.go.kr

은 가문의 구성원이 가문의 위기를 초래할 패륜 불손한 인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 방법론으로 효부모와 우형제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표면적 층위에서는 <분천강호가>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서『분천강호록』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씨향약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화친척과 목인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분천강호록』과 <분천강호가>의 양식적 차이로 이해할 수 없다. <분천강호가>는『분천강호록』에 수록된 삭망의의 절차를 시행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는 점을 보면, 양자의 지향이 강하게 긴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효부모, 우형제가 화친척과 목인보의 구도를 통섭할 만하다는 작자 나름의 판단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분천강호가>의 조목 구성을 설명하는 아래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 술을 마신 뒤에 여러 어린이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한다. 노래 가사는 모두 여섯 장이니 첫째 장은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노래이고, 둘째 장은 미처 봉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며, 셋째 장은 위의 두 장을 묶어서 후인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넷째 장은 형제간을 경계하는 것이며 다섯째 장은 친척 간을 경계하는 것이고, 여섯째 장은 위의 다섯 가지를 묶어서 반복 권면하는 것이며 眞諺을 섞어서 부르게 한다. 지금은 우선 기록하지 않는다.[42]

<분천강호가>는 교훈시조에 속하는 여섯 수의 연시조이지만, 그 구성적 특징은 개별 윤리들을 조목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1-2수에서 부모와

而及之, 其惑者, 亦不至於禽獸之域也. 嗚呼! 老夫之望, 於汝曹亦云, 勤且至矣."

42) 이숙량, 앞의 책, "酒後令諸幼, 迭歌樂章. 樂歌凡六章, 一慕父母兄弟之歌, 二追恨其未及養, 三結上二章而勉進後人, 四警兄弟, 五戒親戚, 六總結, 上五章而反覆勉之, 而雜以眞諺. 今姑闕之."

www.kci.go.kr

형제를 주제로 다루고, 이어서 3수에서 소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후 4-5수는 형제와 친척을 주제로 하고, 다시금 6수에서 전체의 주제를 취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천강호가>는 부모와 형제에 대한 문제가 작품의 전체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후서>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작품의 주제의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강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후서>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 화친척의 대목이 기술된 점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서문의 언급과 작품 사이의 괴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후서>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효부모와 우형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척 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43] 또한 목인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숙량은 목인보를 화친척의 조목과 대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작품으로 제시하지 않은 듯하다.[4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분천강호가>는 효부모와 우형제를 중심으로 화친척(=목인보)으로 확장되어 가는 윤리의 함양 단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

43) 이숙량, 앞의 책, “설포의 아버지가 후처를 얻은 뒤에 포를 미워하여 쫓아내었다가 포가 효성을 다할세 여러 해만에 아버지와 계모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또 그 조카들이 분재하여 따로 살려고 할세 좋은 토지와 기물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나쁜 것만을 자신이 차지하여 이르기를 내가 평소 쓰던 것이라 몸과 입에 맞아 편안하다고 하였다. 최효분, 효위 형제가 효도하고 의리를 지키며 인자하고 온후하였으며, 우애가 지극하니 그 아내들도 역시 서로 친애하여 유무를 함께 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분의 숙부가 사망한 뒤에 홀로 있는 숙모를 어머니처럼 섬기어 모든 재물을 그 숙모에게 맡겨 사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숙모가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우홍의 아우 필은 술을 좋아하고 취정이 심하여 우홍의 소를 쏘아 죽였는 것을 그 아내가 말하여도 못들은 채 하다가 여러 번 말하니 포를 뜨라하고 글을 읽으면서 아우를 탓하지 않았다.”

44) 이숙량, 앞의 책, “和親戚. 范文正公曰, 吾吳中宗族, 甚衆於吾, 固有親疏. 然, 吾祖宗視之, 則均是子孫, 固無親疏, 苟祖宗之意. 無親疏, 則飢寒者, 吾安得不恤也. 於是恩例俸賜, 常均於族人. 此則達而在上者之事, 吾等窮而在下, 雖不得行其法, 苟以文正之心爲心, 則豈無一分之可相資. 乎其目有四曰, 德業相勸. 事父兄, 敎子弟, 睦親故, 擇交遊, 謹祭祀, 廣施惠, 畏法令, 謹租賦. 過失相規, 酬博鬪訟, 行止踰違, 造言誣毁, 營私太甚. 禮俗相交. 長幼有序, 貴賤有分, 歲時來往, 吉凶問遺. 患難相恤, 水火 盜賊, 疾病, 死喪, 孤危, 誣枉, 貧乏. 睦隣保. 睦隣之義, 大槩與上條同, 故不別陳之.”

www.kci.go.kr

이와 같은 구성적 특징을 주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목할 점은 <분천강호가>의 주제구현방식은 윤리의 문제를 원론적 층위에서 설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창작 주체의 경험적 진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父母 俱存ᄒᆞ시고 兄弟 無故호ᄆᆞᆯ
ᄂᆞᆷ대되 닐오ᄃᆡ 우리 지븨 ᄀᆞᆺ다터니
어엿븐 이 내 ᄒᆞᆫ 모ᄆᆞᆫ 어듸 갓다가 모ᄅᆞ뇨 <분천강호가> 01

<분천강호가> 01은『孟子』盡心章의 어구와 관련된다. 초장의 '父母 俱存 兄弟 無故'는 맹자가 군자의 三樂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45] 따라서 중장에서 군자의 덕목을 자신의 집안이 갖추고 있음을 노래하는 태도는 이현보 대로부터 분천 지역의 유력 사족으로 자리해 온 가문에 대한 시선과 자긍심을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장이다. 화자는 가문과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처량한 어조로 노래한다. 이는 군자의 즐거움을 노래한 중장과 대비되며 화자의 슬픈 정서를 고조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가문과 떨어진 구성원의 존재가 문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화자의 태도는 1576년 애일당을 중수하기까지 오랜 시간 대구에 머물며 분천의 가문을 돌보지 못한 이숙량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천강호가> 01에서 부모와 형제, 즉 가문을 향한 시선과 그 속에서 유발되는 슬픔의 정서는 이어지는 작품들에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父母님 겨신 제ᄂᆞᆫ 父母ᄂᆞᆫ 주ᄅᆞᆯ 모ᄅᆞ더니
부모님 여읜 후에 부모인 줄 아노라
이제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푸료 <분천강호가> 02

45)『孟子』, <盡心章>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 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www.kci.go.kr

<분천강호가> 02는 부모를 여읜 상황, 즉 앞선 작품에서 '父母 俱存ᄒᆞ시고'의 어구와 대립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시적 상황은 군자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던 가문에 대한 시선과 극렬한 대비를 이루며 화자의 슬픈 마음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숙량이 애일당을 영모당으로 개명한 동인으로 부친을 모시지 못하는 고통을 지적한 사례를 반추하여 보자. 그는 부모를 봉양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던바, 이는 <분천강호가> 02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모당 경영 문제와 관련한 시적 상황은 삭망의에서 이 노래를 향유하였던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관습적 발화의 측면을 넘어서 현실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모당을 중수하고 사호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사족에게까지 차운시를 받았던 일련의 행위들이 효의 윤리를 매개로 이루어진 결과이자 재지 사족으로서 위상 정립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던 정황은 영천 이씨 가문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숙량의 형제들이 영모당에 모여 부모를 그리워하는 행위는 이현보 대로부터 구현되어 온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며, 그들의 가문 구성원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화두였음은 분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시적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은 <분천강호가> 03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 디난 일 애ᄃᆞ디 말오 오ᄂᆞᆫ 날 힘써ᄉᆞ라
> 나도 힘 아니 써 이리곰 애ᄃᆞ노라
> ᄂᆡ일란 ᄇᆞ라디 말오 오ᄂᆞᆯ나ᄅᆞᆯ 앗겨ᄉᆞ라 <분천강호가> 03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오늘을 아껴 쓰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화자의 자책이 스스로를 향한 문제의식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장의 표현은 초장에서 제시한 화자의 문제를 전범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자책과 타

www.kci.go.kr

인을 향한 권면은 종장에서 오늘을 아껴 쓸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된다.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고 봉양하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인바, 愛日의 어구를 풀어서 표현한 것이다.

앞서 조목 구성을 검토한 것처럼 <분천강호가>는 이 작품을 통해 소결의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은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애달픈 마음과 후손들에게 부모 생전에 이를 잘 실천한 것을 권면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적 특징은 이숙량과 그의 형제들이 애일당을 중수하고 영모당으로 개칭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변함없는 효심을 토로했던 마음을 후손들 또한 체화하길 바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이어지는 작품에서 후손 간의 온전한 질서 정립을 갈망하는 시선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모당 경영을 둘러싼 효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적 태도를 넘어서 이숙량 가문 구성원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며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 兄弟 열히라도 처어믄 ᄒᆞᆫ 모미라
> ᄒᆞ나히 열흰 주를 뉘 아니 알리마ᄂᆞᆫ
> 엇더더 욕시메 걸여 ᄒᆞᆫ 모믄 주를 모ᄅᆞᄂᆞ뇨 <분천강호가> 04

> 졈더니 늘거 가고 늘그니 져서 가ᄂᆡ
> 우리 종조기 ᄯᅩ 며치 인ᄂᆞᆫ고
> 이제나 잡 ᄆᆞᄉᆞᆷ 업시 ᄒᆞᆫ잔 수를 ᄂᆞᆫ화 먹세 <분천강호가> 05

> 功名은 在天ᄒᆞ고 富貴ᄂᆞᆫ 有名ᄒᆞ니
> 功名富貴ᄂᆞᆫ 히므로 몯ᄒᆞ려니와
> 내 타난 孝悌忠信이ᄯᅳᆫ 어ᄂᆡ 히믈 빌리오 <분천강호가> 06

<분천강호가> 04는 형제간의 화합을 당위적 진리와 관련하여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위적 진리를 헤치는 요인으로 화자가 주목한 것은 私慾이다.

www.kci.go.kr

주지하듯 조선 사대부는 公私의 경계를 도덕성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질서 문제와도 관계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보면, 사욕에 대한 화자의 경계는 가문의 질서 정립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천강호가>의 향유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형제들이 이숙량의 영모당 경영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숙량 형제의 모임은 말년에 처한 長老들의 개인적인 친목 교류 수준을 넘어서, 그들로 대변되는 각각의 가정이 가문이라는 통합된 구성을 전제로 다시금 소통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문 구성원 간의 화합은 현실에서 직면한 화두였을 것이다. 형제간의 근원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며 사욕에 빠져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을 타이르는 어조가 담긴 <분천강호가> 04의 구성은 이와 같은 윤리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 정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천강호가> 05는 형제간의 문제의식을 가문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장에서 종족이 몇 남지 않았다는 화자의 어조는 종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 또한 영모당 중수를 전후한 저간의 사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영모당을 중수하기 이전 이숙량 가문에는 연이은 哀事가 일어났다. 1565년에 셋째 형인 李希樑(1501~1565)을 장사지낸 것을 시작으로 1571년에 이문량의 손녀 사위인 柳仲淹(1538-1571)이 34세의 나이에 요절하였고, 이듬해인 1572년에는 이문량의 아들인 李元承(1518-1572년), 1574년에는 從弟인 李忠樑(?-1574)의 장례를 치렀다.[46] 가문의 연이은 애사는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고조되는 동인이었을 것인바, 중장의 언술 또한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천강호가>의 1-5수는 영모당 운영을 전후로 이숙량과 그의 형제들이 마주한 역사적 조건을 토대로 가문 구성원을 감발시키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6수에 이르러 효제충신으로

46) 이중량, 『하연선생연보』 참조.

www.kci.go.kr

대변되는 사대부의 보편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이를 통해 <분천강호가>는 효부모와 우형제의 윤리를 근간으로 화친척에 해당하는 가문의 윤리를 거쳐 보편적 윤리 규범으로 확장되어 가는 구성 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교화의 대상인 가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현실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도 교화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이다. 가문의 최고 어른으로서 이숙량 형제들이 공유하는 경험적 진실의 문제는 효의 윤리와 결합하여 교화의 대상인 후손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천강호가>가 효부모와 우형제의 윤리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문 구성원의 연대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영모당 경영의 문제와 긴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모당 경영은 분천 지역 유력 사족으로서 이현보 대로부터 자리한 효의 문화적 맥락을 계승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효부모, 우형제의 윤리 규범이 바탕이 된 일련의 행위들, 삭망의의 거행과 <분천강호가>의 향유 등은 표면적으론 가문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면서 이면에는 지역 사족으로서 위상 정립 문제와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분천의 유력 사족으로서 자리한 그들이 가문의 위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향촌 내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는 지배계층인 사대부에게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일상의 문제를 넘어 영모당 경영을 전후로 이숙량 형제들이 처한 현실적 정황을 보다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모당을 개명한 1576년 백형인 이문량은 이미 80세의 고령이었고, 이중량의 경우는 江原道觀察使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된 상황이었다.[47] 또한 이계량은 분천에 거주하지 않았고,[48] 이숙량

47) 이중량, 『하연선생연보』, "五年辛未, 拜吏曹參議. 冬拜江原道觀察使. 神宗萬曆元年癸酉, 敍拜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48) 1578년 중추일에 애일당에서 이루어진 四皓會에 모임에서 비로 인하여 이계량이 오지

www.kci.go.kr

또한 분천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문 구성원 간의 결합을 위한 일련의 행위는 이 시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영모당 경영과 맞물려 추진되었던 사호회와 구로회 등과 같은 연대 모임의 사례는 이를 적절히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숙량의 백형인 이문량이 강상 범죄와 관련한 불명예를 입었던 정황 또한 문제적이었다. 平陵道察訪을 역임하고 있었던 이문량은 1561년에 驛子 洪奉良(?-?)의 殺母 사건에 피해를 입고 말았다. 교화를 잘못하여 강상의 대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찰방인 이문량을 비롯하여 부사와 판관이 모두 파출당하고, 강릉의 유향소마저 체직당하였다. 부친인 이현보의 시호가 孝節公일 정도로 그의 가문에서 효의 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문량의 관할지에서 벌어진 강상범죄로 인한 파면과 불명예는 그의 형제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문량 형제들이 경험한 강상 윤리의 붕괴 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576년에 賊子 申福(?-?)의 殺母 사건으로 인하여 안동부가 6년 동안 현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49] 강릉부의 살모 사건이 읍호 강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정황으로 보아 그는 분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숙량, 『매암선생문집』, <白鬢紅杏相照如昔不能無一語偶得兩絶奉 呈筠翁賀老二兄> 巖花依舊向人開, 細雨如絲不用催. 三白髮聯三夜枕, 苦吟何處獨徘徊. 時止堂兄將赴期中路阻水不來詩以代之. '止堂'은 이계량의 堂號이다.

49) 『영가지』에는 1576년 3월 안동부의 臨河縣 上宿村에서 반역사건이 일어나 府使인 梁喜(1515-1580)가 파면 당하고 本府가 縣監으로 강등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안동문화원, 『國譯 永嘉誌 · 宣城誌』, 영남사, 2011, 381쪽. 당시 안동의 읍호 강등 사태에 대한 복호소를 작성한 인물이 이문량과 인척 집안인 柳雲龍(1539-1601)이다. 柳雲龍, 『謙菴集』, <請安東復號疏 代邑人作> "엎드려 생각건대 臣등이 사는 안동부는 지난 병자년(1576년)에 賊子 申福이 그 어미를 죽인 일로 縣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 6년이 지났어도 아직 復號가 안 되었습니다. 안동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오래토록 더러움에 빠져 아직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으니 분하고 부끄럽기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략)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都護職任의 중함을 살피시어 피폐한 읍의 불행이 심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멀리는 지난날의 문서를 살피시고 가까이는 조종을 본받아 넓고 큰 은혜를 돌리시옵소서. 한 지방의 백성에 혜택을 주면 국가가 더욱 다행해지고 교화가 더 잘 되고 백성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됩니다. 伏以臣等所居安東府, 去丙子年, 以賊子申福弑母, 貶降爲縣. 于今六年, 尙未復號. 一鄕民物, 久淪於玷汚之中, 而未能洗濯, 且奮且

www.kci.go.kr

않았던 것을 보면, 안동부가 현으로 강등되었던 정황은 당시 신복의 살모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부친인 이현보 대부터 효를 매개로 향촌 사회의 윤리를 교도하는 가문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이숙량과 그의 형제들에게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숙량 형제들은 영모당 경영을 전후로 형제간의 연대의식을 고취해야 할 상황과 효의 윤리 규범이 무너진 사회로 인한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모당을 운영하고 삭망의와 <분천강호가>를 향유하는 행위는 그들 형제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서 또한 의미 있는 행위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분천강호가>의 향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자가례의 일상화 작업이라는 거시적 구도와 함께 영모당 경영 문제를 둘러싸고 이숙량 형제들이 마주한 정치사회적 문제들과 그에 따른 문학적 대응의 과정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그동안 이숙량의 <분천강호가>는 16세기 주자가례가 향촌 사회의 일상생활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적절히 반영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16세기 문화사적 맥락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한 선행 연구의 성과는 <분천강호가>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고에서 주목한 점은 당대인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그 대응 양상이었다.

그 결과 <분천강호가>는 1576년 영모당 경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恥, 如不自容. (중략) 伏願殿下察都護職任之重, 愍弊邑不幸之甚, 遠稽往牒 近法, 祖宗特回渙汗之恩. 以惠一方之民, 則國家幸甚, 敎化幸甚, 民生幸甚." 복호소와 관련한 안동 사림의 동향과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구경희, 「16-17세기 안동지역 엘리트의 정치·행정 행태분석 : 《영가지》·《선성지》의 수록인물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7-132쪽.

www.kci.go.kr

있음을 살펴보았다. 영모당 경영은 이현보 대에 마련된 분천 지역 유력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향촌 사회의 헤게모니 문제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모당 경영을 전후로 이숙량 형제들은 향촌을 개도할 가문으로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여씨향약의 시행 문제와 함께 가문 구성원의 문제적 상황, 그리고 안동 사회의 윤리적 문제 등은 이숙량 형제들이 가문 구성원을 효의 윤리로 교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1576년 영모당 경영을 전후로, 이숙량 형제의 경험적 진실이 바탕이 되어 가문 구성원에게 윤리의 문제를 간곡한 어조로 토로한 <분천강호가>의 향유 맥락은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孟子』

『明宗實錄』

『宣祖實錄』

柳雲龍,『謙菴集』

李晩燾,『譽山文集』

李叔樑,『梅庵先生文集』

李叔樑,『汾川講好錄』

李仲樑,『賀淵先生年譜』

李賢輔,『愛日堂具慶帖』

全慶昌,『溪東先生集』

2. 저서 및 논문

고영진,『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120-142쪽.

구경희,「16-17세기 안동지역 엘리트의 정치·행정 행태분석 :《영가지》·《선성지》의 수록인물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7-132쪽.

길진숙,「16세기 사림의 주자의례(朱子儀禮) 실천과「분천강호가(汾川講好歌)」- 제도에 맞는 몸과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한국문학이론과 비평』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88-293쪽.
(UCI : G704-000665.2006.10.2-1.009)

박연호,『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3,1-300쪽.

朴賢淳,「16세기 예안현 사족층의 修學과 관직 진출」,『교육사학연구』17, 교육사학회, 2007, 93-95쪽.
(UCI : G704-001836.2007.17.1.001)

안동문화원,『國譯 永嘉誌 · 宣城誌』, 영남사, 2011, 381쪽.

이승준,「16세기 함양 사회의 동향과「단가삼결(短歌三闋)」의 문학적 대응」,『민족문학사연구』6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173-174쪽.

임승표,「朝鮮時代 賞罰的 邑號陞降制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www.kci.go.kr

1-177쪽.
최은주,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聾巖 李賢輔의 문화 활동」, 『大東漢文學』 45, 대동한문학회, 2015, 62-66쪽.
(UCI : G704-001498.2015.45.45.004)
최재남, 「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297-315쪽.
(UCI : G704-000768.2002..30.005)
하윤섭, 「조선조 '五倫' 담론의 계보학적 탐색과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3쪽.

www.kci.go.kr

| Abstract |

Management of Lee Sukryang's YeongModang(永慕堂) and Subject Consciousness of <Bunchunganghoga汾川講好歌>

Lee, Seung-jun
Chungbuk Univ. Lecturer.

<Bunchunganghoga> was understood as a work created by the 16th century Family Rites of Zhu Xi spreading to Hyangchon. Based on that, this study looked at the realistic conditions and responses faced by LeeSukryang. As a result, <Bunchunganghoga> i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Yeongmodang in 1576. YeongModang meant that Lee Sukryang inherits his status as a Sadaebu he received from his father Lee Hyun-bo. Like this, The execution of yeossihyangyak from the king and the murder of mother in Andong heightened the need for him to crack down on his family. To sum up, it was enjoyed in the hope that the family members would not become beasts. Therefore, <Bunchunganghoga>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such historical conditions.

Key words : LeeSukryang(李叔樑), Hyo(孝),『Bunchunganghorok(汾川講好錄』, <Bunchunganghoga(汾川講好歌)>, YeongModang(永慕堂), yeossihyangyak(呂氏鄕約).

투고일 : 2020년 1월 30일 심사기간 : 2월 1일 - 2월 21일 게재확정일 : 2월 22일

www.kci.go.kr

www.kci.go.kr